

교회 목표

산림한 예배
천국일본 양생
민족 복음화
세계 전교
이웃 사랑

주관 충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충헌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 2005 충헌교회

THE WEEKLY CH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2005년도 제1차 정기기쁜운을 마치고

예수님의 기도 (눅 6:12)

말씀 안에서 누리는 깨어짐의 은총과 기쁨의 순간들

지난 금요일(18일)에 있었던 2005년 제1차 정기기쁜운이 은혜 중에 끝났습니다.

매 번 그랬듯이 이번 정기기쁜운은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되지 않은 새가족을 포함한 모든 충헌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깨어짐의 은총과 새롭게 보아지는 기쁨의 순간들이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전혀 기도가 필요 없었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 2005년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해야 할 사명인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래 전부터 기도하고 금식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이기에 더욱 달고 오묘했습니다.

특별히 번덕이 심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일찍부터 나와 기도로 준비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2005년 주님이 보시는 그것이 되기 위해 주신 은총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1.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과연 기도가 필요하실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기도가 필요한 자들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하고 어리석고 더럽고 추하여 모든 것이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인간 중에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만일 기도 없이 살 수 있는 자가 있다면, 그 분은 하나님이지며 성육신하신 예수님 뿐이다(히 7:26). 또한, 예수님은 죄를 고백하실 필요가 없으시다(마 6:12).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이 가진 어떤 더러운 속성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분은 죄가 없는 완전한 삶을 사신 분이셨다. 그분은 죄가 전혀 없이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이다(요 1:14). 그러나 우리는 매일 아담의 원죄로부터 시달리며 쓰러지고 넘어진다(롬 7:24). 사실 주님은 훌륭한 성교인이었지만, 제자들은 성교하는 방법이 아니라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였다(눅 11:1). 이 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마 26:41). 참으로 놀라운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기 원하는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영적인 능력을 얻기 원하는가? 그렇다면 주님의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 때가 가장 즐겁다'(찬 482장).

2. 예수님의 기도의 본보기

예수님은 바쁜 신 중에 홀로 인간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산으로 가셨다. 우리도 예수님이 가셨던 "산"처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찾아보자. 그리고 그 장소에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고뇌와 변명을 모두 하나님께 내어 놓자. 예수님은 홀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셨다. 예수님은 산에 홀로 모든 영의 호소를 아버지 하나님께 쏟아 놓으셨다(마 6:1). 이것이 주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이 대히 5:7, 빌 2:7,8). 그리스도를 따르자. 하늘의 것을 사모하자.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계속하여 기도하셨다. 우리의 기도에도 필요한 것은 간절함이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한밤의 철야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기도 한다. 새로운 사람이 된다(창 32:28). 기도하는 삶은 우리를 얼마나 변화시키는가? 원하는 것을 받으려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땅의 것만 원하는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 간절함은 어디에 있는가? 천국을 향한 우리의 삶은 피곤해하지 않는가? 예수님은 시냇가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명령하신다(눅 22:46).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히 11:6). 하나님의 임재가 기도이다. 기도는 느낌인 동시에 체험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이다(행 2:2,3).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간절함을 찾으신다.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게 한다. 그리스도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놀라운 교제이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불러 아뢰니..."(찬 479장).

3.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주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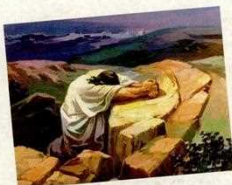
밤새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은 다시 구원을 위한 사역을 계속하신다(눅 6:13). 이와 같은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세례한 것처럼 기도하신다. '교만한 자가 꺾이게 하옵소서', '기만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린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자신을 부인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일꾼들은 오직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삶을 부인하는 진심한 기도자가 되어야 한다(마 9:38).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진 것처럼(단 3:17-18), 예수님도 풀무불에 던져졌다. 우리도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다. 기도의 사람들은 이런 환경 속에서 진정한 은총과 천국의 놀라운 영광을 볼 수 있다(단 3:26). 바로 하나님의 임재이다. 자신을 부인하라. 진실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라.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신다. '아침마다 돌을 때 만들 신전하여...'(찬 358장).

4. 충헌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헌신은 어디에 있는가?

어떤 음식이든 소금이 필요하다. 그 소금의 역할이 바로 기도이다. 어떤 특별한 계획과 활동이 있던 간에 교회는 기도를 멈추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24시간 연속 기도는 충헌교회를 말씀으로 세워 주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신다. 또한, 예수님 자신이 중보의 기도를 드리신다. 은총의 문은 열려 있으나 반으로 돌아오지 말자(시 126:6). 모두가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떠났으나 주님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셨다(눅 22:42,44). 교인들이 떠나 교회가 쇠약하고, 교회의 중요한 부분이 죄의 파도에 쓸려 절멸될까 되더라도 우리 교회에 간절한 기도의 용사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버려두지 않으신다. 모두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자. 바로 예수님처럼(시 69:8,9) 예수님은 원수를 앞에서 가장 비참한 학대와 증오와 멸시를 받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기도의 힘이었다. 그 기도의 힘을 믿고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하자. 여러분의 간절한 눈물로 범벅된 호소의 기도는 분명 하나님의 책에 기록될 것이다.

*지금은 사순절(Lent) 기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고난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사순절(29~32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아게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말씀이 집중적으로 선포된 것처럼 이번 사순절 기간에도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보화 같은 말씀이 선포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 공 진회에 더욱 열심히 참여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야 합니다. 더불어, 금식과 특별 새벽기도회에 더욱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는 계속됩니다.



THE HUNGER OF THE SOUL

“⁽⁶⁾ Seek the LORD while He may be found; Call upon Him while He is near. ⁽⁷⁾ Let the wicked forsake his way, And the unrighteous man his thoughts; And let him return to the LORD, And He will have compassion on him; And to our God, For He will abundantly pardon. ⁽⁸⁾” For My thoughts are not your thoughts, Neither are your ways My ways,” declares the LORD. ⁽⁹⁾” For [as] the heavens are higher than the earth, So are My ways higher than your ways, And My thoughts than your thoughts.”

(Isaiah 55:6-9)

All humans need fellowship. Fellowship comes from our physical and spiritual relationships. Good relationships produce good fellowship, which bring us comfort, happiness, and peace. Bad relationships generate bad fellowship, which brings us discomfort, sadness, and chaos. As important as it is to experience beautiful physical relationships, it is even more important that our souls have a beautiful spiritual relationship. If our souls do not have a proper relationship and fellowship with God, then stress, disappointment, anger, and all sorts of terrible conditions come about. As a believer, I want to ask you right now, what kind of relationship and fellowship is there between you and God? Today's Bible verses explain how the human soul can grow and develop a right relationship and fellowship with God. Like it or not, life carries us physically and spiritually onward. Whether we practice or do not practice the Christian faith, we still move toward a final destination.

Where do you look for satisfaction? The Bible says, “Seek the Lord while He may be found; call upon Him while He is near” (v. 6). If you do not look for satisfaction in the Lord, then you end up building a relationship with the devil. The best happiness and contentment come through calling on God. He will teach you how to approach heaven. He will give you guidance, direction, and blessings upon blessings. Isaiah 55:1&2 says, “Ho! Every one who thirsts, come to the waters; and you who have no money come, buy and eat. Come, buy wine and milk without money and without cost. Why do you spend money for what is not bread, and your wages for what does not satisfy? Listen carefully to Me, and eat what is good, and delight yourself in abundance.” Here God talks about wine, milk, and bread, indicating that the human soul needs sustenance in order to grow and develop. When a believer's soul comes out from Egypt and Babylon, it needs God's nutrition in order to be satisfied.

So many people seek satisfaction in material wealth and earthly power. The Bible says that your life needs the things of God, not the world. If you have no relationship with God, you can never be satisfied, no matter where you look. Every generation tries to find new things in reality to satisfy them. You continually look around for earthly pleasures, only to be disappointed in your findings. Why do you not look around in the bible? Why is it that you always want to get something earthly in order to be satisfied? I think you never look in the Bible because you do not believe in what God says, and you do not believe that what He says will satisfy you. I see believers striving to obtain whatever earthly junk their neighbors possess. This way is far, far from God. If you say you are going to heaven, but believe in earthly health and wealth; if you practice this kind of faith, then you worship idols, not God. That is why your soul hungers, starves, and cannot grow. Listen my friend, do you want your soul to grow and develop or wither and die? If you seek answers from earthly things, from the things not in the Bible, then you will experience conflict and confusion. Your boss will become the devil because you will be deceived. If you look for satisfaction from the world, you lose the word of life. You will not be able to understand what God says because you will view the Bible as just an ordinary book full of paper and ink. You

will lose the real meaning of life because you look to the world to satisfy the things only God can satisfy. Jeremiah 2:13 says, “For My people have committed two evils; they have forsaken Me, the fountain of living waters, to hew for themselves cisterns that can hold no water.” If you turn your back on God and look to the world for money, knowledge, time, and all the stupid things that never give you satisfaction, you will be greatly dissatisfied. You will complain and experience many unhappy things.

You need to either discover or recover your relationship with God. Isaiah 55:3 says, “Incline your ear and come to Me. Listen, that you may live; and I will make an everlasting covenant with you, according to the faithful mercies shown to David.” God will give you the exact answer to satisfy you, if you listen to His Word. He will give you everlasting life. This relationship is the most important relationship. “Let the wicked forsake his way and the unrighteous man his thoughts; and let him return to the Lord and He will have compassion on him, and to our God, for He will abundantly pardon” (v. 7). How important is this Bible verse to you? You can meet Jesus anytime you want. He is available 24/7! He is standing and knocking at the door to your heart this very moment. He died for you, prayed for you, and prepared an eternal home just for you. Do you want a relationship with Him, or would you prefer a relationship with some billionaire, president, or actor?

My dear friend, seek God's way. You cannot discover or recover a relationship with God unless you go God's way. What is God's way? Isaiah 55:8&9 says, “For My thoughts are not your thoughts, neither are your ways My ways, declares the Lord. For as the heavens are higher than the earth, so are My ways higher than your ways and My thoughts than your thoughts.” If you think you are a special case, think again. You are standing in the way of death. Please remove yourself from there by going the way of life. Accept the gospel! Romans 1:17 says, “For in it the righteousness of God is revealed from faith to faith; as it is written, ‘But the righteous man shall live by faith.’” Jesus is the way, truth, and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but through Him (see Jn. 14:6). He is the Creator. He is love and grace. He took the cross, so that you could come to Him and be a holy person. You can repent, confess, and give up your life to Him, and He will be faithful. In reality, you have nothing, you think you have everything, but God knows you have nothing. You do not need money to receive eternal life. It is a gift from God. already paid for by the blood of Jesus. No one can buy it because it is God's grace. It is priceless, yet free to all who come. If you come to Him, your soul will grow and develop a right relationship and fellowship with God. You will become God's child, His heir.

Do you want to go your way or God's way? I hope stupidity does not cloud your decision, thinking your way is okay. It is not! Please, listen to God's word. As this is third Sunday of Lent, think about Jesus' suffering. His cross takes care of everything for you. Are you going to listen to Him, or are you going to listen to yourself or the world? Come to Jesus and make your relationship and fellowship with God. Fill your soul with the things of God, and it will hunger no more. 🙏

영혼의 굶주림

**“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7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8 여호와와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9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사 55:6-9)**



김성환 목사

사람은 누구에게나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제는 육적·영적인 부분이 서로 관계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서로 좋은 관계에 있으면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고, 이런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위로와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서로 좋지 못한 관계에 있으면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없고, 그 결과 우리는 슬픔과 갈등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육적으로도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영적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더불어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올바른 교제를 이루지 못하면, 스미레스와 살람, 분노와 모든 종류의 나쁜 상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신자로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와 교제를 맺고 있습니까? 이 해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좋아하던 좋아하지 않든, 우리는 육적·영적으로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실천하여 실천하지 않든, 우리는 종족역을 향하여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찾으라, 부르라

여러분은 어디에서 만주를 구하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6절). 만일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만주를 구하지 않으면, 결국 여러분은 마귀의 울무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최고 행복과 만족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태도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이르는 길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며 복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사가 55장 1, 2절은 말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이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와 쟁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 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쁨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기에서 하나님은 포도와 쟁과 양식을 얻으주시는데, 이는 인간의 영혼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라남에 필요한 모든 주사기 위함입니다. 신자의 영혼이 애굽과 바벨론에서 구원을 받을 때, 그 영혼이 만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자라남이 필요합니다.

영혼의 굶주림, 세상의 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돈이나 권력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어둠을 바라보다 해도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시대마다 사람들은 만족을 얻기 위하여 현실 속에서 새로운 것들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이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 두리번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즐거움은 아무리 많이 누려도 실망을 안겨줄 뿐입니다. 왜 여러분은 말씀 속에서 참된 만족을 찾으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왜 꼭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것을 소유함으로써 만족을 누리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많은 신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소유한 세상 것들을 가지고 주어진 몫부림당한 것을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과 너무나 거리가 먼 행동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이 세상에 서의 건강과 부를 믿고 지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굶주리고 성장하지 못 합니다.

여러분은 영혼이 자라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바삭 말라 비틀어져 죽기를 바라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성경에서 성경에 뜻하지 않고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서 답을 찾으려 한다면, 여러분은 갈동과 혼란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귀의 굴속에 넘어갔기 때문에 마귀가 여러분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세상으로부터 만족을 기대한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경적은 새까만 글씨가 가득한 평범한 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인생의 길 의미도 잃어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복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3절은 말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더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물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등지고 결

코 만족을 줄 수 없는 어리석은 것들과 돈과 지식과 시간을 얻으려고 이 세상을 의지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실망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는 불평이 터져나올 것이고, 여러분은 불행한 일들을 무수히 겪을 것입니다.

들으라, 살리라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거나 회복해야 합니다. 이사가 55장 3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인약을 세우리니 곧 포도밭에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 만족할 만한 정확한 대답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를 맺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7절). 여러분은 성경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십니까? 여러분은 원한던 언제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만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 밖에 서서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고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여러분을 위하여 영원한 집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돈이 많은 사람이냐 높은 사람이냐 화려하고 인기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영혼의 풍성한, 십자가의 길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할 수도 없고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길은 무엇입니까? 이사가 55장 8, 9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와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혹시 여러분은 특별해서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사방에 이르는 길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속히 돌이켜 생명의 길로 행하십시오.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로마서 1장 17절은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살고 있는 하나님께로 오라 자 아무도 없습니다(요 14:6 참고).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은혜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의인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킵니다. 바로 이 십자가 은혜로 여러분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으며, 예수님께 인생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전부를 예수님께 맡기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질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스스로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빈털터리임을 아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시므로 이미 값을 다 지불하신 선물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값을 주고 그것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굳이 값을 따지자면 아무런만한 값을 지불해야 하겠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값을 받지 않고 선물로 주어집니다. 예수님께로 나아오면 여러분의 영혼은 성장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주님을 사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주께로 돌아오라

여러분은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어리석음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분이 많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의 길도 괜찮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기를 바랍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오늘날 사순절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만이 이 세상을 따르시겠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과 더불어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누십시오. 채워지지 않을 세상의 것들에 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십시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영혼은 굶주리지 않고, 주님의 은총으로 풍성한 것입니다. **▲**

수요 1부 예배 메시지

자신의 투쟁

(롬 4:17-25)

우리는 은총의 자녀들이다. 그렇다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영명한 투쟁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해야 할 영명한 투쟁은 하나님을 향한 투쟁이 되어야 한다. 자신의 욕망, 꿈을 이루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투쟁이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개인의 실과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계시는가? 성막의 의복을 입은 분이신가? 진정 나는 사탄의 것이는가? 제비가 그 십자가에 대한 투쟁이 있어야 한다. 이런 투쟁이 없으면 우리는 욕심과 분노에 따라 살게 된다. 로마서 4장에서 말하고 있는 전체 논쟁은 믿는 자에 관한 것이다. 4장 전체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떠나야 했다. 갈대아 우르, 하란, 세겜, 가나안으로 갔지만 다시 애굽으로 갔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 앞에서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였다.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에게는 영혼난 일이 일어났다. 가는 곳마다 고생이었다. 조가 롯도 아브라함을 핏줄에 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였다. '네, 내가 여기입니다! Here I am!'. 하나님의 명령은 정확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 그러나 실제 아브라함의 삶은 어려움과 고난의 연속이었다. 우리의 마음, 생자의 투쟁들이 2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라"(24절)가 되어야 한다. 자신의 투쟁이 어디에 있었는가?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대하고 있는가? 나의 믿음 약할 때 나의 믿음 약할 때 주님 붙들었다. 사는 법의 주 나를 붙들었다(한 423장).

내 마음 속의 근심, 걱정, 스트레스가 어디에 있는가? 출제해지자. '기뻐한 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시고 같이 그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롬 4:17).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었다.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따라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하였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나나에 하늘을 구러러 못 별을 속수 있으나 보리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창 15:5). 아브라함 앞에 주어진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크게 보았지만 어려움만 있었다. '내가 너와 네 언어를 세세히 나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창 17:4). '내가 너를 나와 너와 내 대를 후손의 아비가 세세히 영원한 천국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창 17:7). 이것은 영명한 하나님의 언약이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믿음을 가졌다. 그리고 자신의 투쟁을 믿음에서 결론지었다. 아브라함에게는 오직 믿음뿐이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의 은총을 받은 것으로서 믿음으로 일하고 있는가? 세상적인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마다 불평하며 주님을 떠나지는 않은가?

장로 칼럼

약할 때 강함으로 이끄는 은총의 십자가



김 경형 (세교교우원장)

2005년은 주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사용되기를 기도하며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딤후 2:20, 21). 누구든지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릇도 기도가 마지 끝 그릇은 은으로 같이 덧입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보기에 화려한 그릇이 아니라 오직 깨끗한 그릇임을 생각할 때, 참으로 우리 마음 중심에 십자가 보물이 있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을 바라볼 때 죄와 악행뿐임을 고백합니다(골 3:23). 따라서 우리는 은총의 십자가만을 의지할 뿐입니다.

늘 기도하며

우리는 고백의 5대 목표를 정하여 모든 성도가 늘 기도하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5대 목표의 각 영역 안에서 구체적으로 활동하며 이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혼의 예배를 위하여 예배 안과외 헌금 · 성례원전, 찬양대원으로 봉사하고 찬양교회 양생회 위하여 많은 은사를 기교 하고 있습니다. 특히부부는 젊은이들이 교회와 교회의 모든 예배와 사역에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 보아 주는 부부입니다. 그 동안 금요침례 사역은 탁발부부를 개발하지 않았지만 금번부터는 예배에 자원이 없도록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탁발부에서는 사역을 전개하는 데도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탁발부는 사역의 모순을 볼 수 있습니다. 사역부는 교회 안의 장사치세종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번영을 부수합니다. 학생들의 특수수업에 맞추어 탁발부의 비율이 1:2로 배정되어 고교나 대학교는 물론이 아니라 중학교도 다. 이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명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배부부는 기도 목사님 이하 교사들이 모든 진행을 수호하며, 창직자예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육하는 부서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것

제3교우원회는 성도들을 교육하고 훈련하여 주님의 마음에 합한자로 세우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3교우원회는 제3교우원회와 연결되는 영명회로 모이는 교회학교와 특수 기구의 교육부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명회 부서는 장년 1부(40대), 장년 2부(50대), 장년 3부(60대), 소양부(70대 이상)가 있고 특수부서는 주일 예배 시간 중 어린 자녀들을 맡아서 돌보아 주는 탁발부, 장사치세종교인들이 갈망하는 사역부, 창직자예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부 있습니다. 그 동안 제3교우원회 소속이던 결혼을 앞둔 예비부 및 결혼 1~2년차의 신혼 부부를 대상으로 성경적 가정교육에 대해 공부하던 신혼가정부는 편제 개편에 따라 제3교우원회의 청년 2부로 합쳐졌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는 성도들을 교회를 안내하여 처음 믿는 분들에게 기독교의 기본을 가르치던 새가족부는 별도의 독립 부서로 변경되었습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어

제3교우원회는 7개 교회학교에 교사 490여 명, 학생 1980여 명이 있으며 자립의 독특한

약속하신 것에 확신을 가지자. '약속하신 것들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롬 4:21). 아브라함에게는 확신이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확신이 있어야 하는가? 우리는 이 확신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영이 내리셨다. 우리는 죄의 사슬에 철저히 매여 있다. 우리의 삶에는 오직 죄뿐이고 그 사슬에 매여 있다. 이 속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가? 주님이 제정 중요하였는가? 이러한 갈등, 자신과의 투쟁이 있어야 한다.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일에도 철저히 부응하였다. 아브라함의 투쟁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투쟁이었다. '여러분 일 달할 때 내 믿을 장군으로 의지하는 내 주를 믿고 의지합니다. 밤을 때에 노래 하며 어떤 때에도 기뻐하며 모든 것을 전하느니라. 아무 일도 만드느니라 예수 우리 하나님'(한 342장). 주님만이 진짜이다. 주님께만 대답이 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상을 은혜로 주시기 아니 하고 빛으로 여기가나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건강치 아니한 자를 의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라'(롬 4:5). 하나님은 실재를 요구하지 않고 믿음을 원합니다. 절 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주권을 믿는 것을 의로 여기시나. 후자는 믿음으로 믿는 것이다. "그러므로 후자가 되는 것이기에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고하 하신대로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롬 4:16). 창세기7를 통해서 볼 때 아브라함의 투쟁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투쟁이었다. 아브라함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믿음 안에서 해결할 수 있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성취하신 것이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볼 때 아브라함에게는 이 땅의 소유권을 전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자신이 터를 바라보고 살았다(히 11장). 우리의 투쟁은 믿음의 투쟁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붙들고 애굽살렘으로 가시는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는 투쟁해야 한다. 나를 부리게 하고 나를 내려놓게 하는 것만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을 만들어 놓고 내가 될 줄을 주를 위해 투쟁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을 맡기신 동안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소개하여 한다. 우리의 투쟁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영생불변의 믿음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 계산 없이 밀려, 의의 사슬 속에서 투쟁할 뿐이다. 도를 같이 하나님의 지대(롬 12:1).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을 약속이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자로 원함이나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라' 예수는 우리 범죄들을 위하여 내 몸이 되고 또 그 수고를 의로 삼아 주심을 위하여 여가하셨느니라'(롬 4:24,25). 우리 믿음의 바탕이 무엇인가? 우리도 그가 대한다. 그리스도는 모든 투쟁이 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 하여 주셨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축복이다. 죄를 용서 받고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 한다. 의의 투쟁은 나를 부리고 살아가는 지는 것이다. 세상적인 욕심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투쟁하지 말라. 우리의 투쟁은 어디에 있는가? 나를 개주하게 주소서. 죄와 타락하지 않게 살리시 십자가를 깨닫는 믿음의 투쟁이 있게 하소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며 순종케 하소서. "그리고 같은 내가 힘 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고 가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라"(한 422장).

만을 실려 각 부서에 적절한 복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장년 1부부터 장년 3부까지는 말씀 위주 공부를 하며, 동일 영명회로 모이기에 깨끗한 사람과 헌신의 마음을 늘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새가족부들은 다른 새신자들이 다음 교우로 장년부에 소속되어 교회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동일영명회와 교제하면서 주님을 배워 나가고 있습니다. 소양부는 70세 이상의 분들이 매주 600여 명이 모여 자녀나 신앙의 어려움을 받고 천국을 소망하며 말씀과 기도로 돈독한 신앙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탁발부는 젊은 여자들이 교회의 모든 예배와 사역에 사역에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 보아 주는 부서입니다. 그 동안 금요침례 사역은 탁발부부를 개발하지 않았지만 금번부터는 예배에 자원이 없도록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탁발부에서는 사역을 전개하는 데도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탁발부는 사역의 모순을 볼 수 있습니다. 사역부는 교회 안의 장사치세종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번영을 부수합니다. 학생들의 특수수업에 맞추어 탁발부의 비율이 1:2로 배정되어 고교나 대학교는 물론이 아니라 중학교도 다. 이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명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배부부는 기도 목사님 이하 교사들이 모든 진행을 수호하며, 창직자예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육하는 부서입니다.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

제3교우원회의 여러 부서들 볼 때마다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늘 감사드립니다. 영명의 많고 적음이나, 신체가 자유하든 부자유하든, 정신에 장애가 있거나 없거나에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으로 오게 하여 오직 성교와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와 같이 나오니 손과 아귀로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익이라"(엡 2:19)는 말씀을 실감합니다. 이해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물로 구원받은 자리가 모든 한 자리에 한 몸이 되는 것을 아주 실재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민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는 주님의 명령을 받은 자들이 세기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해하면 우리 교회의 목표와 같이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며 특히 천교인 1명 1명 전도하는 일과 신학교에 발맞추어 나갈 것입니다. 장년, 2, 3, 소양부는 물론이 아니라 특수부서인 예비부에서부터 전도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비부들은 사실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인간적인 약함은 주님께 모두 맡기고 전도와 선교에 모든 힘을 쏟을 것입니다. 또한 행정직으로 미흡한 부분들을 바로잡으며 사자가 복음에 기초한 교육을 통하여 주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세우실 수 있도록 모든 일꾼들은 열매처럼 도를 감당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라 이는 내가 약할 그 때에 곧 강함이라"(고후 12:10). 약할 때 강함을 받는 십자가의 은총이 있기에 제3교우원회에서는 모든 중들이 존중받았습니다. 또한 더욱 더 주님의 은총만을 사모할 것입니다. 이처럼 은총을 받은 일꾼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통한 십자가의 은총이 있기에 각 부서가 주님의 말씀 위에서 든든히 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2월이지만 이미 우리 교회는 주님의 은총으로 풍성한 은혜로 가득합니다. 특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총 속에서 제3교우원회에도 속한 모든 일꾼과 학생들은 십자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주님만을 의지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모든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자녀로 ③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



저는 G국에서 온 바티케일입니다. 1968년 한국에 와서 의정부 송우리의 성우 공장에서 감당사로 일했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저는 생활이 너무 힘들었고, 고향에 있는 가족들이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홀로 있는 저에게는 많은 외로움이 찾아왔고 이런 저에게 공장에서 같이 일하는 아주머니가 교회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부친에 사신 (현직인신교사 존비사) 아주머니는 출석하신다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셨는데, 토요일 저녁에는 교회의 바드 청소를 하였고 주일에는 점심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분은 저를 꼭 친자매처럼 대해 주셨고 저를 집으로 초대하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감사해서 같이 교회에 나가 예배드리고 함께 봉사도 했습니다. 한국말을 잘 몰라 목사님의 설교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처음 제가 드린 기도는 가족에 대한 아주 단순한 소망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고향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건강하게 지켜 주세요."라고 기도했으니까요. 저는 설교를 잘 못 알아들어도 계속 예배에 참석하며 기독교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온 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알마 후 공장에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우리나라 사람 한 명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종원교회에 가 보세요. 그곳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 말씀이 통역되어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라고 했습니다. 저의 마음에 종원교회에 가고 싶은 강한 충동이 생겼습니다. 다음 주에 종원교회에 찾아갔습니다. 우리나라 친구들은 따뜻한 마음으로 저를 맞아 주었고, 특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에 깊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서 주일마다 교회를 빠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저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따라 집에 다니며 불교를 접했을 뿐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종원교회에서 목사님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

을 때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매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에 한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점차 나의 마음은 예수님으로 채워졌고, 나의 눈물이 슬픔이 아닌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로 변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평평을 얻었네." 찬송가 405장의 찬양이 제 입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저의 구원주이십니다.

처음 한국에 있을 때의 꿈은 돈을 많이 벌어서 본국으로 돌아가 멋진 아파트에서 행복할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다니며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2000년에 세례를 받고 의정부 G국립 찬양 리더로 봉사했고, 한국어 찬양도 하고 있어서 찬양대 봉사로 하였습니다. 찬양대원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모습에 많은 은혜를 받고 제 자신도 찬양대원으로서 많은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전파 행보가 아닌 세상에서 멋진 삶과 싶은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전파 행보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러던 중 제 마음 속에 신학공부를 하고 싶은 열망이 강하게 일었습니다. 저는 목사님과 같이 1년 동안 기독교를 보았습니다. 그 동안 단기 선교를 위한 언어 강사로 일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학원 스피커도 마치고 알고 남의 나라 땅으로 향하는 성도님들의 헌신을 보며 저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싶은 마음이 깊어져 교회의 도움으로 더더욱 신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또 우리나라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자옥에 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신학을 공부하신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선교사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 복음을 잘 하지 못해 통역을 사용합니다. 저는 우리나라로 돌아가 모국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저는 현재 종신대학교 선교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게는 6개월 된 막내아들이 있는데 저의 남편은 제가 학교 가는 시간에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제 대신에 아이를 돌보아 주며 제가 공부하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제 조국에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더욱 나를 부린하여 십자가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사랑합니다.

외선부 수련회 후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되어

나에게 외선부 수련회는 도전이고 기쁨이었습니다. 피부 색은 물론 생각과 언어가 각양각색인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함께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며 찬양과 기도,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다. 믿음의 눈을 뜨고 감추인 보화를 찾으라는 개회 예배부터 저녁 부흥회까지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믿는 말씀이 외국인 지체들과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하나님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버리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그토록 크게 다가온 적이 있었을까? 바로 이어진 선포식에서 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외국인 지체들의 발을 씻겨 주기도 전에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그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함께 느낄 수 있기에 감사했다.

"하나님... 하나님...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은혜의 단비가 외선부 지체들 한 영혼에게 축복히 내려진 밤이었습니다. 모두 믿음은 미소로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이라고, 날 사랑하시고 날 사랑하신다고 아낌없이 서로를 축복해주었다. 부흥회 시간 이후 팀별로 가진 시간에서 G국 지체들의 간증은 나에게 도전이 되었고, 날 반성하게 했다. 눈가에 눈물을 글썽거리며 고백한 그들을 바라보며 난 참 뿌듯합니다. 내가 다른 이들 앞에서 이렇게 솔직히 고백한 적이 있었단가. 그들의 마음은 활짝 열려 있었고 그들을 만나 주신 예수님 이야기를 하느라고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 이렇게 만나 주신 예수님을 꼭 전하셨더라고요 결심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그들의 모습을 참 아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구나!" 이들은 분명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 그 땅의 영혼들에게 이들의 마음 속에 새겨진 예수님을 전할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들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자신의 땅을 구했던 요셉처럼, 굳건한 믿음으로 적국의 왕을 통하여 그 나라 백성에게 하나님을 선포하게 했던 다니엘처럼, 이들 역시 타국인 한국 땅에서 귀하게 쓰임받으리라. 하나님은 당신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자를 훈련시키시어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1박 2일의 짧은 수련회였지만 하나님 앞에 난 걸음 걸은 히나갈 수 있는 시간이었기에 더욱 감사하다.



이명우 (외선부 교사)

▲ 지난주에 도착한 선교팀

기간	팀	팀장	기간	팀	팀장
2월 5일(목)-2월 14일(월)	찬양대1	이경재	2월 10일(목)-2월 19일(월)	대학부14	김옥진
2월 7일(월)-2월 16일(수)	대학부12	이상범	2월 10일(목)-2월 19일(월)	대학부15	김현배
2월 7일(월)-2월 16일(수)	대학부13	윤용현	2월 10일(목)-2월 19일(월)	대학부16	최준호

한 영혼을 위한 증인들의 고백

은총을 입은 많은 단기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금요일에 매에 고백했던 선교 보고 내용을 간추려 보았습니다.

- *제한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 *제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뿐이었습니다.
- *저는 무한한 종이었습니다.
- *많은 노동자로 저를 쳐다보는 눈길을 볼 때 정말 감격이었습니다.
- *정말 기뻐했습니다.
- *저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았습니다.
- *그들을 향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2005년 단기선교 언어훈련 국가 및 장소

1. 언어 강의실

언어	강의실	언어	강의실
몽골	제1교육관 308호	이집트	제1교육관 505호
중국(내몽골)	본당 112호	방글라데시	제1교육관 303호
인도	제1교육관 201호	캄보디아	제1교육관 307호
러시아	제1교육관 407호	베트남	제1교육관 510호
키르기스스탄	제1교육관 404호	동티모르	제1교육관 403호
우크라이나	제1교육관 202호	우즈베크	제1교육관 410호
투발루(마올도바)	제1교육관 405호	영여(중국)	제1교육관 401호
불가리아	제1교육관 508호		

2. 교육기간 및 일자 (총 4차 2월 6일 - 2월 25일, 매주일 오후 3:00~3:50)

3. 수강내용

- 1) 선교언어 필수암기 25개 문항을 암기 및 발표
- 2) 현지어 찬양 2-3곡을 필히 암송
- 3) 1:1전도 설움을 현지언어로 반복
- 4) A형 전도지와 B형 전도지를 능숙히 읽기
- 5) 영접기도문 숙지 및 암기
- 6) 지리, 문화풍습, 기후, 국가통치체제 소개(10~15분)

▲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기간	팀	팀장	기간	팀	팀장
2월 21일(월)-3월 1일(월)	13교구 3지역	최정남	2월 11일(금)-2월 21일(월)	대학부17	윤해균

보통방 성경학교 후기

기도와 따뜻한 손길 속에서

봉공방(봉천동 공부방)을 알게 된 건 대학부 1학년 때 같은 팀의 인사를 통해서였다. 찬양대나 교회 학교 교사로서의 성직이 아닌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복음조차 제대로 전해 들지 못 하는 아이들에게 직접 나아가 함께 공부하고 말씀을 나누는 봉공방 사역은 주님이 내게 주신 또 하나의 복이었다. 그곳의 아이들은 아직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아이들에서부터 고등학교 진학을 고민하는 아이들까지 다양하다. 집에서 직접 가니를 쫓겨 먹기 힘든 형편이나 학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공부방에 모여 선생님과 같이 공부를 하고 저녁을 먹는다. 그렇게 대학부의 봉공방 선생님들은 일 주일에 한 번 직접 봉천동에 있는 공부방에서 아이들과 같이 시간을 보낸다.

방학 때에는 '봉공방 성경학교'를 열어 학기 중에 말씀을 짧게 나누고 학과 공부를 하던 것과는 달리 아이들이 온전히 예수님을 느끼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훈련 받는 시간을 갖게 한다. 이번 '봉공방 제6회 겨울 성경학교' 역시 많은 분들의 기도와 따뜻한 손길 속에서 무사히 끝날 수 있었다.

이번 성경학교의 주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천국일관'이었다.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어린 나이에 가족의 사망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아이들에게 이 땅에 주어진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예수님의 사랑과 또 그를 통해 우리가 천국의 일꾼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귀한 복음이 아이들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기도로 준비하며 진행하면서 아이들은 더 천국의 일꾼으로 쓰임받는다는 것, 또 이 땅 가운데서 함께 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알 수 있었다.

그곳에 와서는 시끄럽게 장난 치고 떠돌던 아이들,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쉽게 말을 하지 않던 아이들,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보다는 연예인과 한창 몇 버리기엔 정신 없는 아이들, 딱딱한 예식 시간과 계속되는 말씀 공부에 지루함이 투쟁을 부리던 아이들도 저마다 예전 시간, 전도사님의 인도로 계속된 기도시간에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 가운데서 살아 계신 성령님을 느낄 수 있었다. 또 아이들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또 지난 기도 훈련 시간에 배운 기도로 폐회 예배 때는 직접 기도를 하기도 했다.

1박 2일 동안의 짧은 시간, 더 많은 말씀을 나누지 못하고, 더 깊게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그렇지만 한없이 순수하고 맑은 그 아이들의 마음 속에 전해진 말씀과 또 예수님 안에서 시간들이 앞으로 그들의 삶 속에 내 알의 씨앗이 되어서 깊게 깊게 뿌리내리기를 기도한다. 또 하루가 다르게 크는 아이들처럼, 그들의 믿음으로 축삭 자라 언젠가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는 믿음의 천국 일꾼으로 같이 서게 될 것을 기대한다.

수련회 후기

들어주시는 하나님

난 항상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기도원 내려와서 불과 몇 일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만다. 이번에는 받은 은혜를 오래 간직하기 위해 수련회 전부터 기도로 준비했다. 이번 수련회 중에 CMTC 교육이 있었는데 강의 중에서 기억나는 것이 하나 있다. G국에 다녀오신 집사님의 경험을 간증하는 것이었는데 선교 현장을 생생히 전해 주셨다. G국은 이방 종교를 엄청 간속하는 편이라는데, 그 분의 팀도 은혜 안에서 무사히 다녀올 수 있었다고 하였다. 선교할 때마다 문제없이 다녀올 수 있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새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번 수련회의 주제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라'였는데 수련회에 처음 오는 사람이나 선교에 생소한 사람은 다소 재미 없었을 것 같다. 그런 사람에게 빨리 하나님께 찾아가 주셔서 그들도 이 기쁜 복음을 널리 전하는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번 수련회 중에 참 은혜로웠던 것은 '부활회'이다. 정말 이번처럼 기도했던 적도 없었던 것 같다. 늘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네 삶에서 기도란 정말 중요한 것 같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편가를 하나님께 다 털어 놓고 그분과 교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텐데가, 무엇보다도 이번 수련회에서 기도로 은혜 받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도 기도함으로써 은혜받기를 원한다. 믿을 만한 기도, 고민을 털어 놓는 기도 등 모든 기도를 다 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니시라.

이승현 (고등부)

금요집회 "선국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그 영생이 왜 우리에게 축복이며 소망인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다. 금요집회 때 찬포된 말씀을 통해 영생을 얻은 우리에게 이미 입한 천국과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장차 입할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절대적 다스리심 아래 하나님의 백성이 있게 되는 곳이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었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세상강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출 19:5-6). 그 통치 안에 속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말씀하신다.

또한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다면 지금 여기 또한 천국의 영역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위가 영원히 건고하리라 하셨다 하라'(사 7:16) 말씀을 통해 다스리심을 하라하신 천국은 천국의 모형이 되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자로 서 있는 다윗 때문에 가나안 땅은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이 회복된 땅이 되었다. 또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것(눅 8:2, 눅 9:11)과 마귀를 쫓아내시는 것을 통하여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심을 드러낸 그 때에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입재한 천국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죽음 이후가 아닌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다(눅 17:21). 이러한 현재! 입하여진 천국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로 설명하고 있듯이 감추어진 보화와 같아서 모두 사람이 쉽게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되어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제명하실 때에 이루어진 천국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임하여 감추어진 모든 것이 공개되는 나라이다(계 11:5).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영역이 되는 것이다. 사단과 그의 나라는 완전히 종말을 고하게 되고 '모든 눈들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람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계 21:4)이 말씀처럼 이뤄질 것이다. 이러한 천국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유업으로 허락하셨다. 단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것만으로 보장된 천국이기에 더욱 감사하다.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천국이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소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세상의 것 위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기쁨으로 얻을 수 있는 참 기쁨을 포기하는 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한다. 더 나아가 이 천국의 놀라운 비밀을 진정으로 믿는다고 믿는다면 감사함으로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세화 (청년1부)

카메라 클로즈 업! 은혜 Close Up!

예배 시간 30분 전, 봉사자 유니폼으로 갈아 입고 대예배실 2층 가운데 있는 작은 발코니에 앉아 눈을 감으니 내 앞에 계시는 주님이 새삼 느껴진다. '아! 내가 어디에 있던 주님은 그곳에 계시는데, 교회 예배당엔 주님이 계시는 게 아닌데, 왜 있고 있었지?' 한 주간을 돌아보니 주님께 부끄럽고 죄송한 일뿐이다. '주여, 한 주간 내게 죄 가운데 지냈습니다. 일에 치여 살면서 너무나 주님을 잊고 있었습니다. 은혜로 귀한 주님의 직분을 맡겨 주셨는데 준비된 마음으로 임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도 소망합니다. 카메라를 통해 비춰지는 화면들이 신령한 예배에 쓰여지기를, 인간의 모습과 기교가 아니라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소서.'

설교 시간, 목사님께 카메라 클로즈 업(Close up). 모든 성도들 또한 전포된 말씀을 사모하며 목사님께 집중한다. 카메라 봉사자로서 예배당 한가운데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부족한 자에게 주시는 큰 은혜이다. 오늘 위임 목사님을 통해 내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 평안"이다. 하루에도 열두 번이 넘게 이리저리 흔들리며 불안하고 초조하게 지낸 내 모습을 주님께 들린 기분이다. 이제부터라도 주님께 주시는 참 평안을 간직하고, 묵묵히 흔들림 없이 걸어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한다. 주님의 부활로 제자들에게 임한 참 평안이 내게도 임하기를...

한 곳의 초점을 맞추면 다른 부분은 흐려지는 카메라. 이 카메라의 렌즈처럼, 세상에 있으나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며 살고 싶다. 예배를 마치고 함께 한 카메라 봉사자들과 감사와 헌신을 다짐하는 기도를 드리고 음영실을 나온다. 한 주간 동안 주께서 주실 참 평안이 나를 주정하게 하소서.

이왕진 (청년2부)



김수연 (대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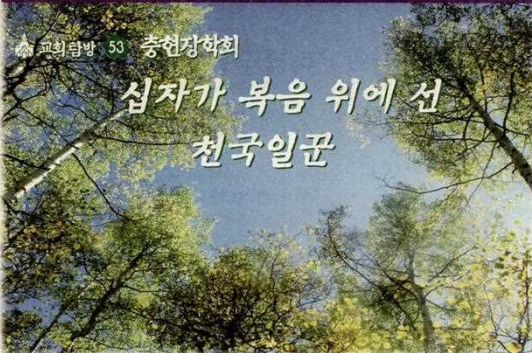
한세화 (청년1부)



이왕진 (청년2부)

☀ 교회탐방 53 충현장학회

십자가 복음 위에 선 천국일꾼



충석애야 하며 어느 부서에서도 충실이 봉사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이나 주일 저녁 찬양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해야 하는 등 장학생을 선발하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기준들을 적용해 공정하게 검토한 후 5등급으로 나누어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가능하면 많은 젊은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최상기 안수집사)

현재 장학생들의 활동 상황은?

교회와 전 부서에 장학금을 받는 젊은이들이 배치되어 남다른 열정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운 장로)

앞으로 장학생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미 세워진 장학생들을 십자가 복음으로 훈련시키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추진하고 있는 선교 프로그램 중에서 중기(3개월~1년) 선교를 담당할 수 있는 젊은이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기획 중입니다. (조충환 장로)

장기장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첫째, 자신이 십자가의 군사로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 교회를 십자가로 이끌고 갈 일꾼으로 성장하는 일입니다. 셋째, 주님의 선교 명령에 헌신해야 합니다. (안창덕 목사)

성도들이 장학 언급에 동참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는, 기복적인 안국교회와 십자가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쓰실 것입니다. 교회가 이 사역을 계속하기 위하여 젊은이들을 일꾼으로 세워 앞으로의 사역에 대비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이런 주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며 장학 언급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운 장로)

헌금을 낼 때의 자세는?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는 마음으로 내야 합니다. 또 천국일꾼을 양성한다는 기쁨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조충환 장로)

그 연건가 교회는 복음 위에 굳게 선 오늘의 젊은이들에게 지금까지 우리가 지고 온 수고의 짐을 풀어 주어야 한다. 또한 교회는 복음이 이끌어갈 아름다운 교회공동체를 소망하며 지어야 한다. 바로 땅 끝까지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그래서 충현장학회는 예수님처럼 이들을 세우는 일에 지금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예수님은 사람을 세우는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다. 산에서, 들에서, 바다에서, 다락방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셨다. 주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복음 위에 굳게 선 사람이 필요하셨기 때문이다. 지금도 역시, 사람은 미래다. 미래는 시간공간으로 다가오지만 그 속에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미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동체에서는 사람을 키우는 일을 소홀히하지 않는다. 또한 그 사람을 어떻게 키우느냐는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 바로 십자가 복음 위에 굳게 선 천국일꾼!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 교회는 복음 위에 굳게 선 젊은이들을 뽑아 이들을 세우는 일에 특별한 정성을 쏟고 있다. 충현장학회, 이 귀한 사역을 위해 섬기고 있는 믿음의 일꾼들을 만나 보았다.

충현장학회의 목적은?

우리 교회 5대 목표 중 하나인 '천국일꾼 양성'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충현장학회는 이런 젊은이들을 세워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사로 양육하기 위해 사역하고 있습니다. (안창덕 목사)

충현장학회의 특징은?

우리가 젊은이들을 세우는 데에는 구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그 구원의 믿음을 가진 자만을 세웁니다. (이운 장로)

장학생 선발 기준은?

우선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2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속한 부서에 잘

다음주일 친송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곡은 버틀러(C. F. Butler)가 1898년에 작시하고 작곡자 제임스 밀턴 블랙(James Milton Black)이 같은 해에 곡을 붙인 뒤,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는 곡이 되었다.

1절은 죄에서 구원받고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니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천국이라는 것이다. 천국이란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할 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우리가 죽을 이후에 주님과 함께 거하는 영원한 처소인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할 때 천국 백성으로서 그 맛을 보며 사는 것이다.

후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세상이야말로 천국인 것을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동행할 때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임을 찬양한다.

2절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천국이 먼 곳으로 여겨졌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기쁨,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을 알았을 때는 천국이 마음 속에서 이미 시작된 것을 찬양한다.

3절은 천국에 대한 더 분명한 의미를 찬양한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곳은 높은 산 거친 들, 초목이나, 궁궐이나 그 어느 곳이라도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것을 노래한다.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은 가장 큰 축복이며 천국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다. 주님만 우리와 함께 하면 우리는 늘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된다. 주님과 함께 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들이 되자.

(찬양위원회)

새·가·족·을·환·영·하·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448	홍종미	17	청년2부	정숙영(17)	479	박병진	19	대학부	이갑재(15)	510	변순정	2	청년2부	김정연(9)
449	김두연	17	청년1부	홍영희(18)	480	최승준	19	대학부	이종보(15)	511	라나	19	외선부	김숙재(7)
450	정영자	14	청년2부	박숙희(13)	481	김효진	19	대학부	김지연(15)	512	황용주	10	청년2부	최종현(14)
451	김정희	19	청년1부	유정영(18)	482	임새나	1	청년1부	양영애(15)	513	장영하	17	중등3부	홍현희(14)
452	윤송기	19	대학부	김경숙(14)	483	곽정식	1	청년1부	송영애(15)	514	장영진	17	청년2부	이민희(14)
453	김나영	19	청년1부	정경희(12)	484	유자하	19	청년1부	송영애(17)	515	이혜정	17	청년2부	김재원(14)
454	김지은	19	대학부	정경희(12)	485	전보라	19	외선부	김성준(14)	516	이희정	1	청년2부	최정희(14)
455	조은정	19	청년2부	차옥희(12)	486	최재희	7	청년1부	이진규(16)	517	이혜정	17	청년2부	정희희(19)
456	김희희	8	청년1부	조은희(12)	487	권지나	19	외선부	황미재(19)	518	김영환	19	청년1부	박영희(7)
457	조태수	8	청년2부	정경희(13)	488	진 명	19	외선부	황미재(19)	519	지재근	5	청년1부	신현희(9)
458	에 니	19	외선부	황희경(19)	489	송윤구	17	청년1부	고승환(18)	520	전현식	5	청년1부	최선영(9)
459	필립	19	외선부	박성현(15)	490	이재준	19	청년2부	최희순(14)	521	고지광	19	고등부	김지우(19)
460	남유선	4	청년2부	김현순(15)	491	이그르	19	외선부	김영애(14)	522	고지광	19	중등2부	김지우(19)
461	황기환	6	청년2부	신순재(16)	492	박남진	1	청년1부	이진규(16)	523	이진선	19	고등부	김지우(19)
462	김민진	16	청년1부	최세진(11)	493	박영환	16	청년2부	한진주(13)	524	박철순	19	대학부	신현희(17)
463	박영옥	5	신남부	박희순(16)	494	최다	19	대학부	이숙환(16)	525	박경미	19	대학부	임창진(17)
464	유정환	19	청년1부	김진희(17)	495	전유주	19	대학부	최진진(13)	526	윤영진	19	청년1부	박현진(13)
465	박정연	19	대학부	박정연(13)	496	윤영진	19	대학부	정영민(16)	527	이규선	17	청년1부	고현민(1)
466	이보현	19	대학부	박정연(13)	497	안지나	19	외선부	정영민(16)	528	이보현	19	청년2부	이은진(14)
467	김지호	4	청년1부	최은희(12)	498	조기아	19	외선부	김대현(14)	529	김유옥	13	청년1부	송정희(14)
468	이유나	19	대학부	태영자(11)	499	김진경	19	대학부	나희연(16)	530	황용환	19	청년1부	김희희(10)
469	조은순	4	청년1부	양영희(12)	500	조보현	4	청년2부	정숙영(17)	531	이민선	19	청년1부	이은진(14)
470	양영선	19	대학부	양영선(19)	501	김유자	19	중등3부	이영희(14)	532	장우형	19	청년1부	이규희(12)
471	김영자	19	대학부	박현진(17)	502	서영미	19	대학부	한진주(13)	533	송지현	8	청년1부	김대현(17)
472	김정희	1	청년2부	김진희(13)	503	황용주	5	청년2부	한진주(13)	534	이정희	4	청년1부	이유선(1)
473	정영진	19	대학부	최 세진(11)	504	이영희	5	청년1부	조순희(15)	535	조은정	15	대학부	이유선(1)
474	김영진	19	청년1부	최 세진(11)	505	박유미	17	청년1부	이진규(16)	536	조은정	19	청년1부	이은진(14)
475	이민경	19	대학부	김지호(14)	506	김현진	4	대학부	조유숙(14)	537	김정희	19	청년1부	김보희(3)
476	홍현상	19	대학부	김지호(14)	507	김현진	1	청년1부	최희진(14)	538	김정희	19	청년1부	변현숙(3)
477	정현진	19	대학부	정영희(17)	508	정유진	19	고등부	한진주(13)	539	미지희	14	청년1부	김정희(15)
478	김정희	19	대학부	이유선(15)	509	박유정	19	대학부	권영태(17)	540	김정희	13	청년2부	전민선(13)

※ 충현교회와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소식

모임

1. 안수집사 임원 수련회
일시: 26일(토) 11:00~14:00
장소: 제2교육관 4층
2. 안수집사 1회차 부부기도모임
일시: 25일(금) 21:00~22:30
장소: 배다나홀
3. 안수집사 4회차 부부기도모임
일시: 25일(금) 21:00~22:00
장소: 본당하회 112호
4. 권사 3회차 수련회
일시: 25일(금) 9:30~ 예배 후
장소: 갈릴리움
5. 남년전도부 전도희망지구별 월례회
일시: 27일(나주읍일) 15:00
장소: 1과구 제1교육관 501호
2과구 제1교육관 507호
3과구 제1교육관 702호
4과구 제1교육관 601호

별세

1. 최병호 티교편사 김장길 성도의 모친,
7과구 풍남3구역/5일 별세, 7일 장례
2. 신원정 성도 11과구 자하구역/9일 별
세, 11일 장례
3. 남영희 티교편사 남정경 집사의 부친,
최장길 성도의 장인, 6과구 삼천구역/12일
별세, 4일 장례
4. 김순악 성도 함경계 집사의 모친, 최
주 집사의 장모, 3과구 대우5구역/14

- 일 별세, 16일 장례
5. 이철우 씨 이상구 성도의 부친, 박재
집사의 사부, 6과구 가락구역/15일 별
세, 17일 장례
6. 정동수 성도 정만수 집사의 부친, 박성
원 집사의 장인, 6과구 방이2구역/16일
별세, 18일 장례
7. 주동영 티교편사 한종남 집사의 모친,
박정경 집사의 사모, 6과구 오금2구역/
16일 별세, 18일 장례

결론

1. 유한규 군(유석진 목사, 양은영 사모의
아들, 타교회)와 신수영 양 (신상수 장
로, 김영연 권사의 딸, 14구역) 3월 5일
(토) 16:30 미국 세례로 성로교회

◆ 청년2부 초정 전도 전지

주제: 의로움 길에 생명이 죽은 영혼 구원하세
일시: 2월 27일(나주읍일) 12:00~14:00
장소: 제2교육관 2층 집회실

◆ 청년2부 겨울수련회

주제: 믿음으로 나아가는 천국일문
일시: 2월 28일(토) 오후 7:00 ~ 3월 1일(토) 오후 4:30
장소: 제2교육관 2층 집회실

◆ 2005년 상반기 교육관련 학생모집

1. 구 분: 수요성경공부(신학) 교양강습부 · 전임대원양성부
총원전도부
2. 대 상: 모든 성도

*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목에 문의하세요

2005년도 제1차 학습세례식 안내

날짜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장소
2월 20일 (오늘)	1교시 15:00~15:50	기독교개요 (입원력 목사)	교육관 309호	세례관? (하종철 목사)	교육관 304호	유아세례관 (안치원 목사)	교육관 301호
	2교시 16:00~16:40	문답	교구별 강소	문답	교구별 강소		
2월 27일 (다음주일)	찬양예배	성인 학습 · 세례식 (저녁 찬양예배, 분당)	오후 4시 30분까지 입실		유 아 세례식	(오후 3시, 갈릴리움) 오후 2시 30분까지 입실	

이런 주 사순절 새벽기도회 담당

설교자/지도자	21(월)	22(화)	23(수)	24(목)	25(금)	26(토)	27(주일)
설교자/지도자	김성관/최윤덕	나광영/김해길	나광영/신진수	나광영/권오준	나광영/심화민	김용득/김팔자	김익환/안태순

예배담당 안내 (2/23~2/27)

날짜	예배	찬 양	사 회	기 도	설 교
2/23	수요 I	마귀들과 싸우지라 (호산나 찬양대)	김익환	김정림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롬 4:1-5) 김성관 목사
2/23	수요 II	너 근심 걱정 말라 (실로암 찬양대)	황진길	염경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마 1:1) 김용득 목사
2/25	금요일예배	바이올린 입지치/바리톤 홍인국/소프라노 조수진	이창수		양계호 목사
2/27	주일 I	(예배전 찬양)	김준희	함철주	영혼의 줄무늬 (사 55:6-9) 최성규 목사
2/27	주일 II	참아름답다라 외/가브리엘 중창단(지도: 조수진)	김익환	박철구	영혼의 줄무늬 (사 55:6-9) 임원덕 목사
2/27	주일 III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외/트럼펫 최두우, 최은영(합창) 오케스트라	유병희	정진현	영혼의 줄무늬 (사 55:6-9) 김성관 목사
2/27	주일 IV	거기나 있었는가 외/알토 이상민/전찬대(합창) 솔리스트	장 훈	정창길	영혼의 줄무늬 (사 55:6-9) 하종철 목사
2/27	주일 V	주 예수 대문 밖에 외/별명 중창단(지도: 강하나)	여근	고재승	영혼의 줄무늬 (사 55:6-9) 최정훈 목사
2/27	주일찬양	비니엘 아성중창단/실로암 찬양대	이희식	한용철	놀라운 십자가 (고전 1:18-25) 김성관 목사

예배 및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오 전 7:00	본 당
	II 오 전 9:00	본 당
	III 오 전 11:00	본 당
	(수회, 외국어 동서동역 예배)	
	IV 오후 1:00(외국동역 동서동역 예배)	본 당
찬양예배	V 오후 3:00	본 당
	(젊은이들이 드리는 예배)	
	토, 일요일 11:00 II 오후 7:00	본 당
금요일예배	오 전 7:00	본 당
세례기도회	오 전 9:00	본 당

기도원 안내

회 차	시 간	차 량
최초집회	오 전 11:00	오 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10:30	금요일예배 본당 앞 출발

■ 사무장로

김의철 2교구장	김은호 영의 사기	노광현 4교구장	오진국 4교구장	이병학 영의 사기
이원섭 영의 사기	이훈 영의 사기	남선우 영의 사기	김영길 영의 사기	김종구 영의 사기
이원섭 영의 사기	이원섭 영의 사기	이원섭 영의 사기	이원섭 영의 사기	이원섭 영의 사기
이원섭 영의 사기	이원섭 영의 사기	이원섭 영의 사기	이원섭 영의 사기	이원섭 영의 사기
이원섭 영의 사기	이원섭 영의 사기	이원섭 영의 사기	이원섭 영의 사기	이원섭 영의 사기
이원섭 영의 사기	이원섭 영의 사기	이원섭 영의 사기	이원섭 영의 사기	이원섭 영의 사기
이원섭 영의 사기	이원섭 영의 사기	이원섭 영의 사기	이원섭 영의 사기	이원섭 영의 사기
이원섭 영의 사기	이원섭 영의 사기	이원섭 영의 사기	이원섭 영의 사기	이원섭 영의 사기
이원섭 영의 사기	이원섭 영의 사기	이원섭 영의 사기	이원섭 영의 사기	이원섭 영의 사기
이원섭 영의 사기	이원섭 영의 사기	이원섭 영의 사기	이원섭 영의 사기	이원섭 영의 사기

■ 위임목사 김성관

이종대 교구장	정현민 교구장	박기진 교구장	류병희 교구장	김영준 교구장
이종대 교구장	정현민 교구장	박기진 교구장	류병희 교구장	김영준 교구장
이종대 교구장	정현민 교구장	박기진 교구장	류병희 교구장	김영준 교구장
이종대 교구장	정현민 교구장	박기진 교구장	류병희 교구장	김영준 교구장
이종대 교구장	정현민 교구장	박기진 교구장	류병희 교구장	김영준 교구장
이종대 교구장	정현민 교구장	박기진 교구장	류병희 교구장	김영준 교구장
이종대 교구장	정현민 교구장	박기진 교구장	류병희 교구장	김영준 교구장
이종대 교구장	정현민 교구장	박기진 교구장	류병희 교구장	김영준 교구장
이종대 교구장	정현민 교구장	박기진 교구장	류병희 교구장	김영준 교구장
이종대 교구장	정현민 교구장	박기진 교구장	류병희 교구장	김영준 교구장

■ 어전도사

정현민 교구장	신동자 교구장	윤인숙 교구장	한영준 교구장	김연식 교구장
정현민 교구장	신동자 교구장	윤인숙 교구장	한영준 교구장	김연식 교구장
정현민 교구장	신동자 교구장	윤인숙 교구장	한영준 교구장	김연식 교구장
정현민 교구장	신동자 교구장	윤인숙 교구장	한영준 교구장	김연식 교구장
정현민 교구장	신동자 교구장	윤인숙 교구장	한영준 교구장	김연식 교구장

※ 1:00에 드리는 주일 1부 예배는 30분가량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 등 다국어가 제공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Korean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